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
아동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Variables related to Toddler's Compliance :

Child's Gender, Age,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and the Content of Demands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연계/협동과정
교수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석사 신영아

Departmen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Park, Seong-Yeon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M.S. : Shin, Young-A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termine the relations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characteristics (i.e.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parenting and the content of demands) and the child's compliance. Data were gathered from 153 mothers of toddlers in Seoul, via questionnaires. The major principal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Neither gender nor age differences was found were observed in toddlers' compliance.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relations relationships between both a child's emotionality and the mother's parenting, and a child's compliance. That is, in cases in which the child's emotional reactivity and the mother's authoritarian parenting were high, the child evidenced lower compliance, the child showed whereas the higher the mother's authoritative parenting were was, the higher compliance the child showed displayed. The hierarchical regressions analysis indicated that maternal demands on 'caring' was constituted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o predict for the prediction

of toddlers' compliance, and child activity level and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were also significant variables.

주제어(Key Words):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 (toddler's compliance), 순종/불순종(compliance/noncompliance),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s), 요구내용(content of demands), 기질(temperament)

I. 서론

걸음마기의 발달내용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나 참아야 하는 등,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부모나 발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걸음마기의 순종행동은 자녀가 가족과 사회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기르게 되는 초석이 되므로 자녀양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Maccoby, 1992).

순종행동은 12-18개월경에 자기통제의 초기적 형태(Kaler & Kopp, 1990)로 시작하여 간단한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가 지난 아동들은 성장해 가면서 서서히 부모의 요구나 사회의 기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에 의한 외적통제에 의해 행동을 조절하다가, 점차 이를 내면화하여 내적통제에 의한 조절을 하게 된다(Grusec & Goodnow, 1994; Kochanska, Tjebkes, & Forman, 1998; Kopp, 1982; Vaughn, Kopp, & Krakow, 1984). 한편, 걸음마기에는 성인의 요구나 기대를 무시하거나 거부, 반항하는 불순종 행동도 절정에 이르게 된다. 즉, 운동 및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걸음마기 아동은 점점 더 높은 자율성을 나타내므로, 부모의 요구에 대한 순종대신 자기주장이나 반발행동이 더 빈번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순종/불순종 행동은 자율성 발달의 지표로 해석되기도 하는 한편, 아동의 순종행동은 부모의 요구에 대한 내면화와 자기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한 도덕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기본이 된다. 따라서 아동이 양육자의 지시와 요구를 지각하기 시작하며, 이에 대해 순종하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걸음마기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애 초기의 순종행동은 이후의 인성 및 정서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어, 여러 종단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걸음마기의 아동의 불순종 행동은 이후의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 등의 선행요인이 된다(Chen, Li, Chen, & Liu, 2002; Loeber, 1982; Loeber & Schmalting, 1985; Shaw, Keenan, & Vondra, 1994). 즉, 심각한 불순종 행동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유발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순종 행동과 관련되어 아동기의 행동 문제나 학업실패, 청

소년기의 일탈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Patterson, 1982;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결국 적절한 자기주장이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인에 대한 불순종 행동을 부모가 적절히 다루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화과정을 방해하여 이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나 이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나 순종에 대한 요구방식이나 내용은 아동의 순종행동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가정된다.

아동의 성 및 연령과 아동의 순종행동

일반적으로 아동의 순종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순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 Aksan, 1995; Kochanska, Tjebkes, & Forman, 1998).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자발적 순종이 우세한 반면, 남자는 상황적 순종이나 무시하는 불순종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Chen, Rubin, Liu, Chen, Wang, Li, Gao, Cen, Gu, & Li, 2003; Kochanska, 1997b; Kochanska & Aksan, 1995; Kochanska *et al.*, 1995, 1998).

순종행동에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성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남아에게는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격려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자기조절이나 순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Chen *et al.*, 2003; Ho, 1986; Kochanska & Aksan, 1995; Maccoby, 1990)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순종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의 차이 이외에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상호반응적이기 쉽기 때문에(Kochanska, 1997b; Maccoby, 1990) 어머니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요구와 기대를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도 있다.

한편, Schneider-Rosen와 Wenz-Gross(1990)에 의하면, 18개월경까지는 아동이 외부의 통제를 잘 따르므로 자연스럽게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는 동기가 생기지만, 24개월 정도가 되면 충동성과 자율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인지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부과된 규칙과 제한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

는 전환기이자 행동의 재조직 시기를 경험하게 되므로 불순종 행동이 두드러지게 된다. Vaughan, Kopp와 Krakow(1984)에 의하면, 아동의 만족지연 능력은 만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30개월이 되면 개인차가 나타나, 순종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성인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는 불순종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가 36개월경에는 행동이 더 확고해지면서 외부의 통제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통제체계에 의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aler와 Kopp(199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른의 요구와 지시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 순종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Laughlin(1983)은 3세 반의 아동에게는 부모가 제안이나 질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 더 순종적이었지만, 1세 반의 어린 아동에게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적합한 통제전략을 사용할 때 순종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의 기질과 순종행동

Rothbart와 Derryberry(1981)의 기질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순종/불순종 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reactivity)' 과 '정서조절(regulation)'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개 아동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행동의 통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은 순종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정적인 반응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자발적 순종을 덜 나타내고,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Braungart-Rieker, Garwood, & Stifter, 1997; Stifter, Spinrad, & Braungart-Rieker, 1999)). 또한 영아기 때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없다면, 걸음마기 때 부모의 요구에 잘 순종하지 못하여, 회피하거나 반항하는 경향이 있다 ((Kochanska, Murray, & Harlan, 2001; Stifter et al., 1999).

이외에도 기질적 두려움(fearfulness)이 순종/불순종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Kochanska, Coy, & Murray, 2001; Kochanska, Murray, & Coy, 1997; Rothbart, 1989),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아동은 순종적인 경향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는 아동은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다. 기질차원 중 활동성 역시 아동의 행동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활동성이 높을수록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든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홍계옥, 2001), 활동성이 높은 아동은 적응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어(민혜영, 1999; Lewis, 1977; Parker-Cohen & Bell, 1988),

활동성과 순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과 아동의 순종행동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아동의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며, 자녀에게 온화하며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경향이 높다(Feldman & Klein, 2003; Kochanska, Aksan, & Koenig, 1995) 반면, 부모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제재하려고 하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강압적인 행동을 배우게 되고 부모에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순종하는 경향을 보인다(Patterson, 1982;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순종행동과 관련된 양육태도는 연구자에 따라 통제방식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Kochanska와 Aksan(1995)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관여(no involvement),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지도 및 부드러운 통제(guidance/gentle control), 부정적 통제(negative control)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통제전략 중에 부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부드러운 통제를 사용한 경우에 아동이 자발적 순종행동을 잘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순종행동이 낮고 반항적인 경향을 보인다(Power & Chapieski, 1986; Rothbaum & Crockenberg, 1995; Crockenberg & Litman, 1990; Kochanska & Aksan, 1995). 또한 걸음마기에 어머니가 사용한 요구전략에 따라 5세 때 자녀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 어머니가 정적 강화를 적게 사용하고 강요를 빈번하게 하면, 5세 때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uczynski & Kochanska, 1990). 국내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어머니가 대화로 행동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자발적 순종경향이 높고, 어머니가 지도 또는 조정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유아가 상황적 순종을 할 경향이 높아진다(김미정, 2001). 또한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위를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더 순종적이라는 결과도 있다(곽혜경, 조복희, 1999).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전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에 대한 요구방식이나 요구내용도 달라진다. Kuczynski와 Kochanska(1995)에 의하면 어머니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순종행동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민주적인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는 요구 즉, 행동금지

요구보다는 아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하는 요구, 앞으로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예방하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반면에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행동을 금지하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아동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요구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아동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아동의 발달적 성숙과 연관되어 변화한다. 생후 13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부모가 아동에게 하는 요구내용은 주로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서 자기관리, 사회적 규제, 가족 내에서의 규범과 가사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화한다(Gralinski & Kopp, 1993). 아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내용을 '유능한' 행동, '적절한' 행동, '돌보는' 행동으로 분류한 Kuczynski와 Kochanska(1995)에 의하면, 생후 15개월에서 33개월 사이 아동은 어머니의 요구 중 '돌보는' 행동과 관련된 요구에 가장 잘 순종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순종 행동은 사회화 과정의 초석이 되는 한편, 이후 아동의 자기 조절 또는 자기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불순종 행동은 이후 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방해하여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순종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에서는 특히 어린 아동의 순종행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성, 연령,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의 특성과 아동의 순종행동 간의 관계와 이러한 특성들이 순종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성, 연령 및 기질은 아동의 순종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은 아동의 순종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아동의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이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서 주거하는 18~36개월의 아동 153 (남아 81명; 여아 72명)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세로서 약 65%가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70%이상이 300만원 이상으로, 2006년 2/4분기 도시가계소득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311,000인 것에 근거할 때(통계청, 2006),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중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순종행동

아동의 순종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Kuczynski와 Kochanska(1995)의 연구를 참고로 총 24문항이 개발되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의 1점부터 '항상 순종한다'의 5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순종행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총 24문항에 대해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문항을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 α 로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9$ 로 나타났다.

2) 기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uss와 Plomin(1984)의 기질척도인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번안한 전수연(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질척도는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의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되며 '전혀 아니다' (1점)부터 '그런 편이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질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분석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문항을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성(8개 문항), 정서성(5개 문항), 활동성(3개 문항)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alpha=.79, .64, .70$ 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Baumrind(1991)에 기초하여 Robinson과 그의 동료들(Robinson *et al.*, 1995)이 개발한 것을 윤상근(2004)이 한국사회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태도의 3가지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잘 모르겠다' (1점)부터 '정말 그렇다' (5점)까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61문항 중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9문항을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민주적' (27개 문항), '독재적' (20개 문항), '허용적' (12개 문항) 태도 각각의 신뢰도는 $\alpha=.89, .87, .68$ 로 나타났다.

4) 어머니 요구내용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자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는 3가지 범주의 요구내용(유능한 행동, 적절한 행동, 돌보는 행동)을 정하고, Kuczynski와

Kochanska(1995)의 연구를 참고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요구내용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의 1점부터 '아주 강조한다'의 5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4개 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문항을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유능한 행동' (8개 문항, 예; 다른 가족 및 또래를 배려하는 행동), '적절한 행동' (8개 문항, 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표현), '돌보는 행동' (4개 문항, 예; 청결과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행동)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각각 $\alpha = .73, .84, .81$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개발된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K구, S구, Y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7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배부된 총 220부의 질문지 가운데 159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한 질문지나 연구대상 연령인 18~36개월에 부합되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153부 만을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t 검증과 일원 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 연령 및 기질과 순종행동간의 관계

순종행동이 아동의 성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 검증과 F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순종행동은 아동의 성(남아: $M=3.54$ $SD=.48$; 여아: $M=3.67$ $SD=.54$; $t=1.56$, ns) 이나 연령(18~24개월($M=3.51$ $SD=.60$); 25~30개월($M=3.67$ $SD=.51$); 31~36개월($M=3.63$ $SD=.45$); $F(3, 150)=1.12$ ns)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기질과 아동의 순종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종행동은 정서성과만 부적상관을 나타내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아동일수록 순종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24$ $p < .01$).

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과 순종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요구내용과 아동의 순종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표 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 변인과 아동의 순종행동 간의 상관관계 (N=153)

	순종행동		
	전체(N=153)	남아(N=81)	여아(N=72)
양육태도			
민주적	.36**	.23*	.54**
독재적	-.26**	-.13	-.37**
허용적	-.22	-.15	-.28*
요구내용			
유능한 행동	.43**	.40**	.48**
적절한 행동	.41**	.18	.61**
돌보는 행동	.49**	.30**	.67**

* $p < .05$ ** $p < .01$

실시한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연구대상에서는 아동의 순종행동은 민주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독재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아동은 순종적이었으며, 독재적일수록 불순종하였다.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의 순종행동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와만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여아의 경우는 민주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독재적 및 허용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순응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여아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독재적이고 허용적일수록 순응하는 경향이 낮았고, 민주적일수록 순응적이었다.

한편, 전체아동이나 여아의 경우는 유능한, 적절한, 돌보는 행동 등 어머니의 요구내용 모두에서 순종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요구는 순종행동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순종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요구내용이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50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5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하여 독립변수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우선 성 및 연령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투입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투입하였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요구내용을 투

입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 1에서 투입한 기질변인 중 '정서성' ($\beta = -.25, p < .001$)이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 하였을 때에는 '민주적' 양육태도($\beta = .31, p < .001$)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나타난 R^2 변화량은 13%이었다.

한편, 모델 3에서 어머니의 요구내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어머니 '유능한 행동' ($\beta = .18, p < .05$)과 '돌보는 행동' ($\beta = .30, p < .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변화량은 24%이었다. 또한 모델 1과 2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아동의 기질 변인 중 '활동성' ($\beta = -.26, p < .01$)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beta = .18, p < .05$)가 유의하여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46%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유능한 행동과 돌보는 행동과 관련된 요구를 할수록, 그리고 아동의 활동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순종행동은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특히 아동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요구내용에 따라 아동의 순종행동이 다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36개월 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요구내용 그리고 아동의 기질 및 순종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 정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순종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들(곽혜경, 조복희, 1999; Chen *et al.*, 2002; Kuczynski & Kochanska, 1990; Kuczynski *et al.*, 1987; Maccoby & Jacklin, 1974; Minton *et al.*, 1971; 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 Whiting & Edwards, 1988)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동의 순종행동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과 순종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즉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en *et al.*, (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영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의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18~36개월까지의 걸음마기 아동으로 제한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구조화된 실험상황에서 관찰된 세분화된 순종행동 대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자료에 기초했다는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걸음마기 일반적으로 생후 2년경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은 운동능력 및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율성을 나타내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발달과정에 이르게 되므로 아동의 성은 이 시기 순종행동에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순종행동의 성차에 대해서는 걸음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들과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순종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순종행동이 연령에 따라서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는 연구들(Kochanska & Aksan, 1995; Kochanska *et al.*, 1995; Kochanska *et al.*, 1998; Kaler & Kopp 1990; McLaughlin 1983; Vaughan *et al.*, 198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불일치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동일한 발달단계에 있는 'terrible two'로 불리는 걸음마기 시기, 즉 18~36개월 아동으로 제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아동은 순종행동에서 급속한 발달적 변화를 겪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는 Schneider-Rosen와 Wenz-

<표 2> 전체 아동의 순종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의 위계적 회귀분석

	순종행동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성	.14	.14	.13	.12	.12	.12
연령	.56	.09	.05	.08	.06	.10
기질						
사회성	-.01	-.01	.02	.02	.09	.12
정서성	-.19	-.25***	-.07	-.09	-.01	-.01
활동성	-.03	.07	-.10	-.14	-.19	-.26**
양육태도						
민주적			.44	.31***	.25	.18*
독재적			-.12	-.09	-.21	-.15
허용적			-.19	-.12	-.12	-.08
요구내용						
유능한 행동					.17	.18*
적절한 행동					.13	.16
돌보는 행동					.24	.30***
회귀 상수	4.12		3.15		1.64	
F	2.37*		4.52***		9.94***	
R^2	.09		.22		.46	
ΔR^2	.09		.13		.24	

* $p < .05$ ** $p < .01$ *** $p < .001$

Gross(1990)의 주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순종행동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 결과는 성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론적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ochanska와 Aksan(1995)에 의하면, 내면화와 연관이 있는 자발적 순종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상황적 순종은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순종정도보다는 순종행동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넓은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순종행동의 발달적 변화와 경로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순종행동과 기질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아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질 변인도 아동의 순종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기질 중 정서성이 순종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특히 남아는 정서적인 반응성이나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순종행동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 등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은 성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순종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Stifter *et al.*, (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정적 정서가 강한 아동은 성인이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특히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좌절하기 쉽고, 이러한 좌절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아동의 순종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아의 경우에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순종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독재적 양육태도 및 허용적 양육태도는 순종행동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 민주적 양육태도만이 순종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여아는 어머니가 민주적일수록 순종하며, 독재적이거나 허용적일 때 불순종하게 되지만 남아는 민주적일 경우 순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아의 경우는 정서성이라는 기질이 여아의 경우는 양육행동의 영향이 더욱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아와는 달리 남아의 경우는 기질이 순종행동에 특히 중요한 변인일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중요한 양육태도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순종행동에서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Kuczynski와 Kochanska(1995)에 의하면, 민주적 양육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형성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아동의 순종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수용되

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므로, 어머니가 지나친 통제를 가하지 않아도 아동을 쉽게 사회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순종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재적 양육태도는 힘으로 자녀에게 강제적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화과정을 거친 아동들은 권위에 도전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형성하게 되어(Becker, 1972), 순종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권력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선택 및 자율성을 격려하며, 자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Lepper, 1973; Grolnick, Deei, & Ryan, 1997; Hoffman, 1970; Kuczynski, 1982, 1983)를 지지함으로써 순종행동에서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유능한 행동, 적절한 행동, 돌보는 행동, 요구 내용은 아동의 순종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는 어머니의 요구가 유능한 행동이나 돌보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순종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섯째, 성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들은 아동의 활동적인 기질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활동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며 '유능한' 행동에 대한 요구나 '돌보는' 내용의 요구를 할 때 아동의 순종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변인들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은 46%이었으며, 순종행동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 요구내용 중 '돌보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활동적 기질,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돌보는' 요구내용이 아동의 순종행동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Kuczynski 와 Kochanska(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걸음마기 아동은 가장 기초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부터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화의 주체인 어머니는 사회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적절한' 행동이나, 다른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과 관련된 '유능한' 행동에 대한 요구내용 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는 습관과 관련된 '돌보는' 요구내용을 강조 할 것이고 아동도 이러한 요구내용에 더욱 순종적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떤 내용을 더 많이 강조하는지, 특정행동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그에 따른 아동의 순종정도를 밝혀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활동적인 기질이 순종행동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부모들이 높은 활동수준을 보이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방식 즉, 제한적이거나 거부하는 행동으로 통제하기 쉬우므로(Lerner, 1993) 아동의 불순응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수 없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기질 및 양육행동의 주효과 보다는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은 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아의 경우는 기질이,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 발달에는 어머니의 요구내용과 아동의 활동적인 기질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이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순종행동 발달에 미치는 기질과 양육행동 요구내용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예; Kochanska, 2002; Kochanska & Aksan, 1995)하여 본다면 순종행동 유형에 따른 관련 변인이나 발달경로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순종행동은 여러 상황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Feldman & Klein, 2003),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동일수도 있으므로(Sternberg et al., 1991) 상황-특수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에 국한하여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을 연구하였으나, 가정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순종, 어머니의 요구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우선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보고한 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순종행동과 기질, 양육태도의 변량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순종행동이나 도덕적 행동발달에서 기질이나 양육행동의 주효과 보다는 이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통제된 상황에서의 관찰자료나 다른 보고자를 통한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혜경, 조복희 (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김미정 (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혜영 (199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과 기질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1), 63-88.
- 윤상근 (2004). 자녀양육방식, 자아존중감 및 정치적 효력감과 집합적 사회행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수연 (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능력. *아동학회지*, 22(2), 2-14.
- Baumrind, Diana.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746-758 in Richard M. Lerner, Anne C. Peterson, and Jeanne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Garland Pub. Co. : New York & London.
- Becker, Wesley C. (1972).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pp29-72 in David R. Heise (ed.).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Rand McNally & company, Chicago.
- Braungart-Rieker, J., Garwood, M. M., & Stifter, C. A. (1997).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The roles of maternal control and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411-428.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en, X., Li, W., Chen, H., & Liu, M. (2002). Noncompliance and child-rearing attitudes as predictors of aggressive. A longitudinal study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225-233.
- Chen, X., Rubin, K. H., Liu, M., Chen, H., Wang, L., Li, D., Gao, X., Cen, G., Gu, H., & Li, B. (2003). Compliance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428-436.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Feldman, R., & Klein, P. S. (2003). Toddlers' self-regulated compliance to mothers, caregivers, and fathers: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680-692.
- Gra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73-584.
- Groli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E. Grusec &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s of values : A handbook of contermoporart theory* (pp. 135-161). New York: Wiley.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 Ho, D. Y. F. (1986). Chinese pattern of socialization: A critical review.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pp.1-3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Vol. 2, pp. 261-360). New York: Wiley.
- Kaler, S. R., & Kopp, C. B. (1990). Compliance and comprehension in very young toddlers. *Child Development, 61*, 1997-2003.
- Kochanska, G. (1997b).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94-112.
- Kochanska, G. (2002). Committed compliance, moral self, and internalization: A mediation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339-351.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Aksan, N., & Koenig, A. L. (199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ots of preschoolers' conscience: Committed compliance and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1752-1769.
-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091-1111.
- Kochanska, G., Murray, K., & Coy, K. C. (1997). Inhibitory control as a contributor to conscience in childhood: From toddler to early school age. *Child Development, 68*, 263-277.
- Kochanska, G., Tjebkes, T. L., & Forman, D. R. (1998). Children's emerging regulation of conduct: Restraint, compliance, and internalization from infancy to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69*, 1378-1389.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uczynski, L. (1982). Intensity and orientation of reasoning: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compliance to verbal rational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4*, 357-370.
- Kuczynski, L. (1983). Reasoning prohibitions and motivations for 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26-134.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98-408.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 616-628.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n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99-806.
- Lepper, m. (1973). Dissonance, self-perception, and honesty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65-74.

- Lerner, J. V. (1993). The influence of child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n parent behavior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101-120)*.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wis, J. (1977). The relation of individual temperament to initial social behavior. In R. C. Smart & M. S. Smart(Eds.), *Reading in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New York: Macmillan.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66.
- Loeber, R., & Schmalting, K. B. (1985). *Empirical evidence for overt and covert patterns of antisocial conduct problems: A metaanalysis*.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al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08-1017.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Laughlin, B. (1983). Child compliance to parental control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667-673.
- Minton, C., Kagan, J., & Levine, J. A. (1971). Maternal control and obedience in the two-year-old. *Child Development, 42*, 1873-1894.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ilia.
- Patterson, G. R., DeBaryshe, B.,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ower, T. G., & Chapieski, M. L. (1986). Childrearing and impulse control in toddlers: A naturalistic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71-275.
- Robinson, Clyde, Barbara Mandelco, Susanne Frost Olsen, and Craig H. Hart.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 : 819-830.
- Rothbart, M.,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37-86)*. Hillsdale, NJ: Erlbaum.
-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A framework. In G.A. Kohnstamm & J. E. Bates(Eds.), *Temperament in childhood(pp.59-73)*. Chichester, UK: Wiley.
- Rothbaum, F., & Crockenberg, S. (1995). Maternal control and two-year-olds' compliance and def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 193-210.
- Schneider-Rosen, K., & Wenz-Gross, M. (1990). Patterns of compliance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Child Development, 61*, 104-112.
-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 (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s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 Sternberg, K. J., Lamb, M. E., Hwang, C. P., Broberg, A., Ketterlinus, R. D., & Bookstein, F. L. (1991). Does out-of-home care affect complia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 45-65.
- Stifter, C. A., Spinrad, T. L., & Braungart-Rieker, J. M. (1999).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of child compliance: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70*, 21-32.
-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18 to 30 months of ages: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Whiting, B. B., & Edwards, C. P. (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년 3월 30일 접수, 2007년 5월 3일 채택)